

오륙도 칼럼



공 기 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용당동새마을금고 최방식 이사장은 용당동 출신인 임갑수(林甲守) 국회의원(7대)의 친동생인 임하수(林河守) 씨가 1950년대 부산문인협회에서 활동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었다.

그에 대한 기사는 한국디지털도서관의 김규태의 인간기행, 부산문학(1972), 남주문학(2002) 등에서 그의 간단한 생애와 시 20편만 소개되었을 뿐이다.

임하수(林河守, 1927~1960) 시인은 1927년 3월 15일에 용당동 중농(中農)이었던 임사용(林士用)과 허순명(許順明) 사이에서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사립용연보통학교(대연초등학교 전신)를

용당서 출생... 신문기자 생활

나와 부산초량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방 전에 학병으로 출정했는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남아 있으나 징병에 가서 찍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해방 후에 그는 인천에서 삼촌이 경영하는 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조선일보 인천지사에서 잠시 근무하였다. 그는 1949년에 안명순(安明順)과 결혼하고서 부산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막내였지만, 큰형은 정치에 빠져 집을 돌보지 않았고, 작은 형마저 요절하자 임 시인이 집안을 돌보아야 했다.

그의 관심은 문학이었고, 진보적인 형의 사상이나 정치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가택수색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런치를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갖은 고생을 하였다. 신문사나 잡지사에 다녔던 그는 피난 내러온 시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문학에 대하여 담소 나누기를 좋아했는데 시에 대하여 토론을 하면, 그의 시평(詩評)은 해박한 지식으로 날카로웠다고 용당동 문학 지망생이었던

김형달 씨가 증언해 주었다. 또한 문인들과 어울려 미문화원(근대역사박물관)이나 다방을 빌려 시화전을 열기도 하였다. 그는 신문사의 월급과 원고료를 받으면 많은 시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의 집안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민주신보, 주간국제 등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큰형 때문에 고통이 늘 뒤따랐으나 감내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

사람 좋고 해박함 갖춘 문학청년

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둘째 딸만 용당동 본가에 두고 고향이 불편한 용당동을 떠나 광안동 처가에서 생활하였다. 키가 180cm가 넘는 장신인 그는 시 비평 외에 누구와도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없는 무골호인이었다.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니며 사진을 취재하며 시를 쓰는 것이 낙이었다.

휴전된 해인 1953년 시인은 영도에 살고 있는 큰형 집에 갔다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집단 런치를 당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자 심한 좌절과 실망에 빠졌다. 지인들이 말하는 그의 모습은 '늑변의 문사(獺辭)'로 말하여 특유한 너털웃음으로 웃어 넘겼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바빠도 주말마다 꼭 연로하신 부모를 찾아보는 효자였다. 그러나 그는 직장, 문학인들과 만나는 일을 제외하고 용당동에 와서 친구들조차 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월요일이 되어 그는 용당동에서 대교동으로 가는 배를 타고 신문사로 출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시를 낭송하곤 했다. 평소애 조금 말을 더듬었던 그는 시를 낭송할 때에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낭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생전에 '연가(戀歌)'라는 시집의 제목까지 정해두었으나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는 1959년 12월 31일 '대학촌'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송구영신을 끝내고 이튿날 새벽에 잠으로 귀가하던 도중 사고사로 33살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겨울에 외로운 하얀 두루마기 먼 곳을 떠나갔다.

그는 1947년부터 인천에서 시인들과 어울렸고, 1950년대부터 부산에서 활동했던 남구의 최초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는 발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남구 읍유시인 임하수.

견되지 않고, 주로 1957년 이후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된 20편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의 사후 어머니가 그의 시 원고 문지를

서른 셋에 사고로 요절

불태워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 조만간 그의 시집 연가(戀歌)가 출간되어 우리들에게 읽혀졌으면 한다.

한양 사무처 그리운 나의 조국의 앞을 버티어/낙엽처럼 땀나는 나의 지역에서/뒷골목을 감돌아 번두리로 주름 잡아/눈물을 뒹뒹어 고이 가꾼 노래여/억눌리는 가슴 속에 불을 달구며 가자/위태로운 나의 사랑아/상당한 젊음을 앞세우고/그래도 집된 한 길로 나가자 <임하수, '가는 길' 전문>



■임갑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19>

유머감각은 1% 영감과 99% 연습의 결과

필자는 한때 개그맨이 되고 싶어 공중과 방송 3사 개그맨 시험에 노크해 최종 문턱 앞에서 2년 연거꾸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최종에서만 계속 떨어지니 꿈을 포기 할 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개그맨은 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기고, 어떤 연습을 통해 재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다. 아직도 유머 감각은 타고 남아 한다고 믿는 많은 분들에게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연습만 조금씩 반복하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사람들은 어떤 때 웃는가. 표정과 동작이 웃기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공감되면서 해석이 기발할 때 웃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훈련에 임해 보자. 첫째, 자책하는 유머 감각 훈련 방법이 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더욱 더 잘못했다고 과장하는 유머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너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질책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시간개념이 없어 미안해"라고 과장되게 자책하는 코드다. 둘째, 분위기를 반전 감각 훈련이 있다.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바리크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나 안경 꺼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대는 "왜 뭐

때문에 그래"라며 놀랄 것이다. 이때 반전된 표정과 말투로 "너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 너무 눈부시잖아!"라고 말하는 분위기 반전의 유머 코드다. 셋째, "다행이네" 감각 훈련이다.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다행이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뒷말을 애드립으로 이어나가는 형식이다. 가령 "나 옷 찢어졌어"라고 하면 "다행이네~ 너 가을 옷 새로 사고 싶어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전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면서 이야기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안심과 웃음을 주는 유머 코드다. 넷째, 두 단어를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각 훈련이다. 가령 핸드폰, 잠대라는 단어가 있다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핸드폰도 침대 위에서는 쉬게 해주자"라며 현대인들의 핸드폰 중독 풍조에 따르한 일침을 내리며 단어 연결을 하면서 그 의미도 생각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 두 개가 익숙해지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늘려 나가다 보면 순발력이 길러져서 유머 화술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다섯째, 비유는 유머 감각의 기본이다.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유머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의자를 엉덩이 받침대로 표현해 보듯이 주변의 사물, 상황, 사람을 다른 긍정적 이미지로 다양하게 비유 해보는 연습을 하면 쉽고 간단하게 웃음을 줄 수 있다.



산다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7. 1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11/12(일)	관악 백운산	010-3832-5871
	한울림산악회	11/12(일)	대진 대둔산	010-9375-8688
	백천산악회	11/15(수)	구례 오산	010-4655-4370
	악촌산악회	11/8(수)	전북 내장산	010-5621-4007
	대오한악회	11/12(일)	금산 심이폭포	010-8557-0479
	금강산악회	11/5(일)	주왕산 정군봉	010-3865-9051
용호동	용신산악회	11/12(일)	완주 모악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1/5(일)	괴산 회악산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1/19(일)	장흥 천과산	010-7154-3166
	가세기산악회	11/12(일)	지리산 피아골	010-7563-1943
	환경산악회	11/5(일)	백악산	010-3575-3448
	여남산악회	11/12(일)	전천 미인봉	010-3855-6569
용당동	신선산악회	11/12(일)	단양팔경(유람선)	010-6520-0167
	용호산악회	11/26(일)	광주 무등산	010-6266-8525
	용신산악회	11/26(일)	고흥 팔영산	010-2124-9329
	산오름청산악회	11/11~12(일)	강화도 마니산	010-7223-2277
	글로벌산악회	11/19(일)	창녕 회왕산	010-4752-2940
	문정산악회	11/26(일)	김천 출악산	010-3856-7850
감만동	백마산악회	11/12(일)	담양 추월산	010-2692-1170
	백운산악회	11/26(일)	영동 천태산	010-2861-3177
	녹색산악회	11/26(일)	장흥 수인산	010-7343-3426
	오솔길산악회	11/19(일)	영동 금강들레길	010-8287-1192
	우암산악회	11/5(일)	내장산 산행	010-3595-5848
	우남산악회	11/19(일)	화순 무로산	010-7520-6666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11. 12(일)	지리산 피아골	010-2902-8322
	원뿔리산악회	11/19(일)	문경 윤달산	010-4564-7769
	산노산산악회	11/5(일) 11/19(일)	두륜산 들레길	010-4035-3432
	문사산악회	11/12(일)	괴산 덕기산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두 번째 조국서 잠든 레이몽 베나르를 기리며

<프랑스 참전용사>

아래 글은 지난 2015년 5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프랑스 참전용사 레이몽 베나르 씨의 부인 니콜 베나르 씨가 대연동에 사는 지인(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이명래 종합민원센터장)에게 보내 온 편지를 번역했습니다. 베나르 씨는 “죽어서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유엔기념공원 측은 그의 염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나르 씨를 시작으로 현재 6명의 사후 안장자가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미망인 니콜 베나르 씨가 보내온 편지

저희 남편 레이몽 베나르는 1928년 3월 16일 작지만 아름다운 인도양의 레위니옹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출 하지만 근면한 가정의 다섯 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어요. 부친은 그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모친은 다섯째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굳건히 다섯 아이를 키웠습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레이몽은 일찍부터 고통, 슬픔 그리고 우울함을 감추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사랑했던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지요.

어릴 적 꽤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러나 고교 2학년 때 11세였던 남동생 툴랑이 병으로 죽고 이듬해에는 지치고 병든 모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몽은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후 혼자서 여동생 3명을 보살피고 그들의 미래도 책임져야 했어요.

레이몽은 공업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남은 동생들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열아홉 되던 해에 그는 군대에 자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5년 계약으로 자원입대 했어요. 그렇게 그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죠. 자의적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꿈은 깨졌지만 그는 군에서 복종과 단호함, 영투함을 익혔고 배움과 자유를 추구하는 군인으로 되었어요. 저가 남프랑스의 콜리우르에서 공수부대원으로 복무할 때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열일곱이었고 그는 스물 살이었어요. 그 이후 우리의 사랑은 68년이나 지속되었죠.

1950년 여름, 레이몽은 압박 받는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하여 한국전 참전을 자원했어요. 프랑스 참전대대 장병들은 1950년 10월 용기와 의지를 갖고 결연하게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장병들은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용기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복무를 마쳤어요.

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겪은 것에 대해



프랑스 참전용사故 레이몽 베나르 씨와 부인 니콜의 60여 년 전 결혼식 사진. 아래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베나르 씨 묘.

거의 이야기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도 침묵을 지켜야 했어요. 레이몽 역시 금지와 감동으로 묵묵히 자신의 충정을 바라보곤 했어요.

전역 후 그의 삶은 한국과 정 많고 타인을 존중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레이몽에게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조국이었어요. 이제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하고 있어요.

니콜 베나르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7. 10. 25.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더 좋은날	문현동	창고관리원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50만원	010-3830-0033
태성로지스	감만동	물류사무원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85만원	051-632-7942
프라이츠헤임(남부산농협오륙도지점)	용호동	보안관제(경비)원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40만원	051-463-4661
HOYA	용당동	중국어 통번역사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연봉 2100만원	010-2842-0545
대동스튜디오	대연동	텔레마케터	2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30만원	051-628-0184
삼화주유소	감만동	주유원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60만원	010-8521-6638
선진 F&S	감만동	배송 및 납품운전원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200만원	010-9268-5785
글로벌어린이지	용호동	보육교사	1명	17. 10. 20~채용시까지	월 136만원	051-628-3900
미래씨엔에이	문현동	건축시공 (아파트 외 협장시공관리)	1명	17. 10. 19~채용시까지	연봉 2,000~3,500	051-634-1270
중앙 레포츠	용호동	주차관리원	1명	17. 10. 19~채용시까지	월 175만원	051-622-803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주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607-4075

대자연의 품 속에서 있고 있던 나를 발견하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보니

직원해외체험 연수로 지난달 지구 유일한 정정지역이라는 뉴질랜드와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다. 두 나라는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는 반대의 계절이라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남반구에 위도도 비슷하지만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후는 확연히 달랐다. 뉴질랜드에서는 긴 옷에 겹옷까지 입어도 추위를 느낄 정도였지만 시드니는 반팔이 어울리는 날씨였다.

뉴질랜드 도착 첫날 가끔 비가 흩날리는 흐린 날씨였다. 그리 크지 않은 시내를 벗어나자 TV에서 봤던 들녘은 초원이 펼쳐졌다. 가이드는 "지금부터 양이나 소는 논만 돌리던 보이지만 사람 구경은 힘들 것"이라 말했다. 남한 면적의 2.7배인 뉴질랜드를 차량으로 다니다보면 생각이 이상으로 넓게 느껴졌다. 웬만한 목 적지를 가려면 버스로 3시간은 기본이었다. 뉴질랜드의 고속도로는 보통 편도 1차로인데 초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초원 너머 높은 산맥들과 예뻐달랴 빛 호수들이 창 밖으로 끊임없이 펼쳐졌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뉴질랜드다운 곳을 꼽으려면 쿼인스타운이다. 경치가 '여왕의 마을'에 적할할 만큼 아름답다고 아름답 여졌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인 레이크 와카티푸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이 그림 같은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카페와 기념품점을 가득 메웠다.

가장 인상 깊은 뉴질랜드 관광지는 단연 밀포드사운드이다. 여행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가이드는 "일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행히 통행이 재개되면서 오랜 이동시간과 기다림 끝에 도착한 밀포드사운드는 그 모든 여정의 불편함을 한 번에 씻어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함께 한 일행 모두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 것 같다. 종일 내린 비와도 추위를 느낄 정도였지만 시드니는 반팔이 어울리는 날씨였다. 신 속도를 이휘 맑은 날에는 볼 수 있는 장관을 경험했다.

뉴질랜드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던 시드니에서는 호주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잘 정비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여유를 즐겼다. 저녁 야외카페에서 오페라하우스와 시드니항의 멋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호주 현지인이 된 것처럼 시드니의 저녁 한때를 경험했다.

어떤 여행이든 떠나기 전 설렘과 다녀온 후의 아쉬움은 늘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때 그걸 왜 해보지 않았을까? 일정을 다르게 잡았다면 더 많이 보고 체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일의 먼 타국여행, 공식생활에서나 나의 개인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거리로 남을 것 같다.

하영석(문현2동 희망복지팀장)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